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지혜¹ · 전해옥²

한양대학교 간호학부¹, 청주대학교 간호학과²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Kim, Ji-Hye¹ · Jeon, Hae Ok²

¹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²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to survey a convenience sample of 203 nursing students in Cheongju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on stress, self-efficacy,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happines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Subjective happines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r = -.35, p < .001$)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r = .60, p < .001$), ego-resilience ($r = .44, p < .001$), and social support ($r = .38, p < .001$).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included self-efficacy ($\beta = .34, p < .001$), ego-resilience ($\beta = .24, p < .001$), satisfaction as a nursing student ($\beta = .21, p < .001$), stress ($\beta = -.20, p < .001$), and social support ($\beta = .14, p = .012$).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50% of subjective happiness.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effective happiness promotion programs focusing on self-efficacy and resilience improvement, and stress management are highly recommended to promote the improve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Happiness, Resilience, Self efficacy, Stress, Studen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에 의거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느끼는 자기 만족감으로[1]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온 삶의 최종 목표이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행복은 개인, 연령, 문화, 맥

락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경제수준, 건강, 지위 등의 객관적인 조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각국은 경제적 여건의 향상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 증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국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2], 2014년에 20대 성인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보고된 바

주요어: 행복감, 탄력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생

Corresponding author: Jeon, Hae Ok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298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 28503, Korea.
Tel: +82-43-229-8993, Fax: +82-43-229-8969, E-mail: beaulip@cju.ac.kr

Received: Mar 25, 2016 | Revised: May 26, 2016 | Accepted: Jun 13,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있어[3] 청소년과 청년층의 행복에 대한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간호는 대상자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이 인본주의적인 헌신과 돌봄의 간호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4]. 행복감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행복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행복감이 높은 간호제공자로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은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간호사로서 직업관과 가치관 확립 등으로 타 전공 대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5,6].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져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지고[7,8], 이는 학교생활에 부적응뿐만 아니라 취업 후 직업에 대한 불만족과 부적응으로 이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9]. 특히 3, 4학년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엄격하고 전문적인 임상 환경에서 예비의료인으로서의 실습 과정, 취업과 국가고시 준비 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기이므로 이들의 인식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따른 심리적 안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주의, 희망과 같은 개인적인 심리적 자원이 영향을 주고,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완충역할을 하게 된다[10,11].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을 의미한다[12].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적극적인 대처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13],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행복감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간호대학생은 조별로 진행되는 실습교육과 실습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부서의 의료인력 간의 대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능력에 대한 판단정도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 및 이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삶의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개별화되고 통합된 개인의 자원이자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통찰, 재구성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춘다[15].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자아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16] 전공만족도를 높이는[17]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동료, 교수 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18].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 문화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적극적인 대처, 자아존중감 상승으로 이어져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9,20].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감사성향[9,21], 자아존중감[9,22], 긍정적 정서[9], 낙관성[19], 취업결정 자기효능감[22], 스트레스[7,8], 전공만족도[7,19,21,22], 몰입[9]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적 지지[19], 경제수준[9,22]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 양생실천정도[7], 주관적 건강상태[9,22], 대인관계능력[21] 등이 간호대학생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행복에 대한 인식과 유형을 파악하거나[4], 취업 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와 같은 취업 및 학업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이거나[22],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을 한 집단으로 묶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로, 학년에 따른 상황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감과 관련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9,19,21]. 이에 전공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의 병행, 국가고시 준비 등 많은 학업량과 예비의료인으로서의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인간중심 간호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23], 간호대학생 자신의 건강과 안녕뿐만 아니라 간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 제공을 위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상담, 지도 방안과 구체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와 예측요인들을 확인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220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회귀분석에서의 중간 효과크기인 .15,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11개(경제 수준, 가족과 동거 유무, 전공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선배와의 관계만족도, 친구와의 관계만족도, 교수와의 관계만족도,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를 기준으로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최소 표본의 수가 178명이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214부가 수거되었다(회수율=97.3%). 이중 답변이 누락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203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종교, 가족 동거여부)에 관련된 문항과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경제수준, 선배, 친구, 교수와의 관계만족도, 지난 학기 성적, 전공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성하였다.

2) 스트레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Yoo 등[24]이 개발한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사용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임상차원 스트레스의 개념을 하위 구성요소로 하고, 총 59 문항이다. 대학차원 스트레스 영역은 학업, 환경, 개인 간, 개인 내 스트레스를 하위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임상차원 스트레스는 실습생, 실습환경, 실습지도자, 실습대상자 스트레스를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한다' 5점까지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Cronbach's α 는 .94, 임상차원의 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대학차원 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95였고, 임상차원의 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94였다.

3)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등[1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Hong[2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능력에 대한 판단 정도를 반영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17문항)과 대인 관련 사회적 기술 등에 대한 판단 정도를 반영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4) 자아탄력성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Block과 Kremen

[15]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Yoo와 Shim[26]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 낙관성을 하위 구성요소로 하고, 총 1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5) 사회적 지지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18]이 개발하고 Lee[27]가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을 통해 재구성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 교수, 친구의 지지를 하위 구성요소로 하고 총 12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6) 주관적 행복감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yubomirsky와 Lepper[28]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측정도구(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도구 개발자의 사용 허락 하에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대학원생이 한국어로 번역 후 간호학과 교수 2인이 원 도구와 비교하여 번역의 정확성과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87%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대학생 3인에게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 용이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정하였다.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28]된 본 도구는 총 4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설명문, 참여 동의서와 질문지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 후 C대학교 2학년 재학생 3명을 임의 선정하여 예비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항에 대한 이해, 용이성 등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충북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장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 협조를 받은 후 해당학년 대표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연구 설

명문을 확인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는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설문 가능한 시기에 설문지를 완성하여 수거박스에 넣도록 하였다. 자료는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3일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H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No. HYI-15-162)을 받은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설명문에 연구의 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 자료의 폐기에 대한 약속과 불참여시 수업과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였다. 이에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대상자에 한 하여 참여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종료 후 설문지는 익명으로 수거되었으며, 설문을 완성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 ± 1.17 세로 대부분이 여성(85.2%)이었고, 학년과 종교 유무는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거주형

태는 자취(35.0%), 기숙사(31.0%), 부모와 거주(30.0%) 순이었다.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평균인 경우가 54.2%로 가장 많았고, 전 학기 학점이 3.5 이상~4.0 미만인 학생이 38.4%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78.3%가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67.5%였고, 불만족하는 학생이 8.9%였다. 친구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학생은 76.8%, 선배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학생이 48.3%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2.84 ± 0.58 점으로 대학차원 스트레스(2.96점)가 임상차원 스트레스(2.61점)보다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3.28 ± 0.36 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아탄력성 정도는 2.55 ± 0.47 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3.95 ± 0.47 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5.08 ± 1.04 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t=2.51, p=.013$)보다 높았고, 4학년이 3학년($t=-2.79, p=.006$)보다 높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고($F=11.82, p<.001$),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이거나 낮은 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5.65, p<.001$). 선배와의 관계($F=5.87, p=.003$)와 친구와의 관계($F=7.58, p=.001$) 그리고 교수와의 관계($F=3.81, p=.024$)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종교, 거주 형태, 주관적 경제상태, 지난 학기 학점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없었다(Table 3).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낮았으며($r=-.35, p<.001$), 자기효능감($r=.60, p<.001$), 자아탄력성($r=.44, p<.001$), 사회적 지지($r=.38, p<.001$)는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1.8±1.17
Gender	Male Female	30 (14.8) 173 (85.2)
Grade	Grade 3 Grade 4	100 (49.3) 103 (50.7)
Religion	Yes No	100 (49.3) 103 (50.7)
Residence type	Living with parents Dormitory Self-boarding Others	61 (30.1) 63 (31.0) 71 (35.0) 8 (3.9)
Subjective economic status	Good Average Bad	57 (28.1) 110 (54.2) 36 (17.7)
Grade point average	2.5 ≤ ~ < 3.0 3.0 ≤ ~ < 3.5 3.5 ≤ ~ < 4.0 ≥ 4.0	22 (10.9) 63 (31.0) 78 (38.4) 40 (19.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Fair Poor	159 (78.3) 39 (19.2) 5 (2.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137 (67.5) 48 (23.6) 18 (8.9)
Relationship with the senior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98 (48.3) 97 (47.8) 8 (3.9)
Friendship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156 (76.8) 44 (21.7) 3 (1.5)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104 (51.2) 97 (47.8) 2 (1.0)

Table 2. Levels of Major Variables (N=203)

Variables	M±SD	Possible range	Obtained range
Stress	2.84±0.58	1~5	1~5
College based stress	2.96±0.60		
Clinical based stress	2.61±0.68		
Self-efficacy	3.28±0.36	1~5	1~5
General self-efficacy	3.28±0.42		
Social self-efficacy	3.26±0.32		
Ego-resilience	2.55±0.47	1~4	1~4
Social support	3.95±0.47	1~5	2~5
Subjective happiness	5.08±1.04	1~7	1~7

Table 3. Differences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jective happiness		
		M±SD	t or F	p
Gender	Male	5.51±0.82	2.51	.013
	Female	5.00±1.05		
Grade	Grade 3	4.87±1.16	-2.79	.006
	Grade 4	5.27±0.86		
Religion	Yes	5.20±0.91	1.62	.105
	No	4.96±1.14		
Residence type	Living with parents	5.30±1.07	1.74	.160
	Dormitory	4.89±0.91		
	Self-boarding	5.03±1.12		
	Others	5.08±1.04		
Subjective economic status	Good	5.32±1.08	2.13	.121
	Average	4.99±1.05		
	Bad	4.96±1.03		
Grade point average	2.5 ≤ ~ < 3.0	4.78±1.38	-0.95	.416
	3.0 ≤ ~ < 3.5	5.15±0.93		
	3.5 ≤ ~ < 4.0	5.03±0.99		
	≥ 4.0	5.20±1.09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a	5.25±0.97	11.82	< .001 a > b
	Fair ^b	4.39±1.04		
	Poor	5.00±1.0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5.33±0.86	15.65	< .001 a > b, c
	Moderate ^b	4.64±1.10		
	Unsatisfied ^c	4.27±1.04		
Relationship with the senior satisfaction*	Satisfied ^a	5.32±0.97	5.87	.003 a > b
	Moderate ^b	4.86±1.06		
	Unsatisfied	4.62±1.03		
Friendship satisfaction*	Satisfied ^a	5.22±1.01	7.58	.001 a > b
	Moderate ^b	4.62±1.00		
	Unsatisfied	4.08±0.14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satisfaction*	Satisfied ^a	5.26±0.95	3.81	.024 a > b
	Moderate ^b	4.89±1.10		
	Unsatisfied	4.25±1.06		

*Scheffé test.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N=203)

Variables	Stress	Self-efficacy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r (p)	r (p)	r (p)	r (p)
Self-efficacy	-.31 (< .001)			
Ego-resilience	.01 (.860)	.42 (< .001)		
Social support	-.20 (.003)	.27 (< .001)	.33 (< .001)	
Subjective happiness	-.35 (< .001)	.60 (< .001)	.44 (< .001)	.38 (< .001)

5.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

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선배와의 관계만족도, 친구와의 관계만족도, 교수와의 관계만족도와 주요 변수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척도인 성별과 학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

여 분석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2.208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다. 다음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67~0.9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08~1.48로 10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1.99, p<.001$).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의 영향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beta=.34, p<.001$), 자아탄력성($\beta=.24, p<.001$), 전공만족도($\beta=-.21, p<.001$), 스트레스($\beta=-.20, p<.001$), 사회적 지지($\beta=.14, p=.01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예측변수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50%로 나타났다 (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상담, 지도 방안 및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2.84점(5점 만점)으로 학업, 환경, 개인 간, 개인 내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대학차원 스트레스(2.96점)가 임상 실습과 관련된 임상차원 스트레스(2.6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7]의 연구에서 대학차원의 스트레스(2.90점)가 임상차원의 스트레스(2.67점)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이유는 취업을 위한 성적 관리, 과다한 학업량, 과제, 시험과 같은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문헌분석[5] 결과 간호대학생은 전공과 전공 외 수업, 학교생활,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공부일의 양립, 실습업무부담, 임상실습 상황, 사회적 스트레스, 많은 과제물로 인해 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유발요인 파악과 함께 교과과정 개선, 새로운 실습 환경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선배와의 멘토-멘티 관계를 이용한 사회적 지지, 임상실습 전에 충분한 기본간호술기 훈련, 실습 중 시뮬레이션 실습 병행[5] 등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3.28점(5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3.28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3.26점)의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이용한 Kim과 Lee[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점수인 3.33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해석과 적극적인 대처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대학생들 적응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므로[13,17], 상황적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2.55점(4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이는 Kim과 Lee[17]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환산 점수인 2.70점(5점 만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학점이 3.5 이상~4.0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38.4%로 학업성적이 비교적 높고,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67.5%로 높게 나타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Kim과 Lee[17]

Table 5.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bjective Happiness

(N=203)

Variables	B	SE	β	t	p	Model R ²	R ² change
(Constant)	0.41	0.73		0.56			
Self-efficacy	0.99	0.17	.34	5.67	<.001	.36	.36
Social support	0.30	0.12	.14	2.54	.012	.41	.05
Major satisfaction*	-0.35	0.08	-.21	-4.18	<.001	.45	.04
Ego-resilience	0.53	0.13	.24	4.17	<.001	.48	.03
Stress	-0.35	0.10	-.20	-3.65	<.001	.51	.03

R²=.51, Adj. R²=.50, F=41.99, $p<.001$

*Higher scores means low major satisfaction.

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고,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전공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전공만족도 향상[17]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7,19,21,22].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9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교수, 부모,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대상자의 66%가 자취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2%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78.3%가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하는 등 경제적 수준과 신체적 건강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것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Lee와 Padilla[11]의 연구에 의하면, 가까운 친구와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행복감은 관계형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험을 극복하는 능력에 있어, 그들의 신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간호대학생이 76.8%로 비교적 높았으나, 선배와의 관계에 있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8.3% 뿐이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망을 파악하고,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 원인 파악과 함께 지도교수와 주기적인 만남, 선배와의 멘토-멘티 제도, 다양한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7점 만점에 5.0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Park[7]의 연구에서의 4.81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비교적 높고,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의 특성상 남녀 비율의 불균형으로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해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여학생, 3학년 학생들이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집단임을 파악할 수 있다. Park[7]의 연구에서도 3학년이 4학년보다 대학차원의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이는 주관적 행복감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간호학과 교과과정의 특성상 3학년에 전공 수업이 많아지고, 수업과 임상실습

의 병행이 시작되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습 시 갖추어야 할 전공 지식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과로부터 체계적인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낮았으며,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이 변수들의 결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7],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Park과 Jang[2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 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대처능력 및 학업 관련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각 상황별 문제 중심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족과 친구를 주요 사회적 지지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36% 설명하고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hn과 Sim[1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Cassidy 등[10]이 제시한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완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함께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자아탄력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30]의 연구에서 탄력성의 긍정적 요인이 생활 스트레스를 낮추고, 통합적 안녕감 향상에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변화하고 습득이 가능하므로[12,15], 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7,19,21,22]에서와 같이 전공만

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22]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유의하였고, 이중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은 적성과 흥미보다는 취업의 용이성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21]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행복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 문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1]. 간호대학생의 행복 인식은 개인적 배경과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므로 이를 고려한 행복감 증대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4].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전략은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등의 내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주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수준에 관심을 갖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과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학년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과차원에서 심리적 안녕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과 외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상담시설 확보 및 전문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낮았으며,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또한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약 5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중재를 계획할 때,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주관적 행복감이 낮았던 학년과 주관적 건강상태, 선배, 친구, 교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방적 차원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강화 등 정신건강 강화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 Bull.* 1984;95(3):542-75.
2. Park JI, Park CU, Seo HJ, Youm YS.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J Sociol.* 2010;44(2):121-54.
3. Statistics Korea. Cause of death statistics 2014. [Internet]. 2015 Sep [cited 2016 Mar 1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3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4. Jo KH.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1;17(2):178-89.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78>
5. Kim JK.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1):47-59.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47>
6. Watson R, Gardiner E, Hogston R, Gibson H, Stimpson A, Wrate R, et al.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J Clin Nurs.* 2009;18(2):270-8.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08.02555.x>
7. Park HS. Stress, yangsaeng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 femal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 (4):471-81.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471>
8. Ruiz-Aranda D, Extremera N, Pineda-Galan C. Emotional intelligence,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in female student health professional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4;21(2):106-13. <http://dx.doi.org/10.1111/jpm.12052>
 9. Jo GY, Park HS.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 Acad-Ind Technol*. 2011;12(1):160-9.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160>
 10. Cassidy T, Giles M, McLaughlin M. Psychological capital and health: a resource model of stres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Current Adv Psychol Res*. 2014;1(1):1-7.
 11. Lee DS, Padilla AM. Predicting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through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t J Adv Couns*. 2016;38(1):48-60. <http://dx.doi.org/10.1007/s10447-015-9255-2>
 12. Sherer M, Maddux JE, Merac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1982;51:663-71.
 13. Park JA, Lee EK.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11;17(3):267-76.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3.267>
 14. Ahn SA, Sim MY.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J Acad-Ind Technol*. 2015;16(10):7021-33.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0.7021>
 15.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 Pers Soc Psychol*. 1996;70(2):349-61.
 16. Yun SY, Min SH.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2):395-403.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395>
 17. Kim DJ, Lee JS.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2):244-54.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18. Park JW.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1986. 127 p.
 19. Kim JG, Park HS.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Data Analysis Soc*. 2015;17(1):545-59.
 20. Montes-Berges B, Augusto JM.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coping,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7;14(2):163-71. <http://dx.doi.org/10.1111/j.1365-2850.2007.01059.x>
 21. Jun WH, Cha KS, Lee KL.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5;21(2):276-84.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76>
 22. Kim SH, Lee SH.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 Adult Nurs*. 2015;27(1):63-72. <http://dx.doi.org/10.7475/kjan.2015.27.1.63>
 23. Flaming D. Using phronesis instead of 'research-based practice' as the guiding light for nursing practice. *Nurs Philosophy*. 2001;2(3):251-8.
 24. Yoo JS, Chang SJ, Choi EK, Park JW.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8;38(3):410-9. <http://dx.doi.org/10.4040/jkan.2008.38.3.410>
 25. Hong HY.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5. 73 p.
 26. 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 Educ Psychol*. 2002;16 (4):189-206.
 27. Lee CS.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youth leadership skill.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114 p.
 28. Lyubomirsky S, Lepper HS.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 Indic Res*. 1999;46(2):137-55.
 29.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0;16(1):14-23.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14>
 30. Kim HJ. The relations between collage students' life stress and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J Educ Res*. 2015; 13(4):23-41.